직장인 A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냉면 10.26%·김밥 20.83% '껑충'…생선회·떡볶이 두자릿수

비트코인 9개월만에 4000만원 붕괴·코스피 1년 반만에 '최저'

"여기도 올랐구나.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네."

12일 낮 점심시간 광주시 동구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41)씨는 메뉴판을 보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김치찌개 1인분에 7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해 애용하던 식당에서 찌개 가격을 7500원으로 인상한 탓이다.

박씨는 "김치찌개에 500원 올랐다지만 다른 점심 메뉴 가격들은 더 많이 올라 돈 1만원주고 밥 한끼 먹기도 힘들어졌다"며 "투자한 주식과 가상화폐는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는데 물가만 올라 부담이 크다"고 했다.

광주시 동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서모(여·24)씨도 점심값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서씨는 "모밀국수를 좋아하는데 5000~6000원이던 모밀값이 요즘엔 7000~8000원까지 올랐다"며 "간단히 혼자 식사를 해도 8000~9000원은 기본인데 인턴 급여로는 매일 식사비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했다. "밥값이 많이 올라 직장 선배들에게 매번 얻어먹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는 양모(여·36)씨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나오니 주변 밥집 물가가 1000~2000원씩은 오른 것 같다"며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시면 점심에만 1만5000원은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 탓에 '점심값 고민'에 빠지고 있다.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고물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비빔밥 가격은 평균 8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0원)보다 7.41% 올랐다. 짜장면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9.09% 올랐고, 칼국수 한그릇도 7000원에서 7800원으로 11.43% 올랐다. 김밥은 한줄에 2400원에서 2900원으로 20.83%나 증가했다.

또 호남지방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봐도 전남지역 구내식당 식사비는 전년 대비 8.6%, 커피는 6.6% 올랐다. 광주지역 생선회는 16.2%, 떡볶이는 14.1%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외식물가가 크게 치솟았다.

이처럼 외식비용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심을 비롯해 각종 모임과 회식 등 저녁식사 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게 직장인들의 하소연이다.

식비 뿐만이 아니다. 기름값도 치솟으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937.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0.91원) 417.05원(27.42%)이나 올랐다. 경윳값은 1년새 1318.92원에서 1926.35원으로 무려 607.43원(46.05%) 폭등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다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다는 직장인 김모(42)씨는 "일주일에 보통 4만원 들어가던 기름값이 요즘엔 6만원 정도 들어간다"며 "부담을 덜어보기 위해 요즘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했다.

실제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광주도시철도 이용객은 45만9081명으로 전년(43만8697명) 대비 2만384명(4.65%)이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유동인구가 늘어난 데다, 기름값 부담으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비와 교통비가 무섭게 오르는 사이 주식과 가상화폐 등 재테크 수익은 곤두박질 친 것도 직장인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날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개월여만에 처음 4000만원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피도 1년 반만에 최저인 2550대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만났던 박씨 역시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수천만원대 손해를 봤다고 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모두 처분했다가 손실을 보전하고자 여유자금을 모두 털어 2주전 비체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샀지만, 이날 -45.08%의 손해를 봤다며 울상을 지었다.

박씨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전해보려고 모아뒀던 여유자금으로 343만7868원을 투자했는데 154만9938원이 떨어져 188만7930원만 남았다"고 말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직장동료 이모(42)씨 역시 투자열풍이 불때 5175만7354원의 주식을 샀으나, 이날 현재 -51.02%(2640만5119원)의 손실을 보고 2547만4502원 밖에 남질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가상화폐도 주식도 하락장이라 암울하기만 하다"며 "밥값도, 기름값도 안오르는 게 없이 전부다 오르는데 투자금만 수천만원을 날린 탓에 단 돈 만원 한장 쓰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가상화폐 벼락부자 재산 급감은 '현실'

가상화폐 급락세 속에 거래소 설립자 등 가상화폐로 막대한 돈을 번 부호들의 재산이 급감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개인 자산은 지난해 11월 137억달러(약 17조6000억원)에서 현재 22억달러(약 2조8000억원)로 반 년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거래 규모에서 코인데스크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의 자산 손실 규모는 암스트롱 CEO를 훌쩍 뛰어넘는다.

올 1월 960억달러(약 123조3000억원)에 이르렀던 자오창펑의 순자산은 이날 116억달러(약 14조9000억원)로 844억달러(약 108조4000억원), 87.9%나 감소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캐머런 윙클보스 형제의 자산은 각각 올해 들어 22억달러(약 2조8000억원)가 줄었고,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맨 프라이드의 자산은 3월 이후 반 토막나 113억달러(약 14조5000억원) 수준이다.

가상화폐 상업은행 갤럭시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래츠 CEO의 재산 역시 지난해 11월초 85억달러(약 10조9000억원)에서 최근 25억달러(약 3조2000억원)로 급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일자리희망버스' 첫 대면행사

전남중기진흥원, 기업체 방문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도일자리플랫폼이 12일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를 올해 첫 대면행사로 운영했다. 지역 구직자 23명을 대상으로 순천, 광양 일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까지 연계시켰다.

그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보류돼 왔던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구인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근무환경이나 대우 등에 관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올바른 취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칭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측면도 있어 구직자와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순천 신대지구에 올해 3월 신축·개소한 전남일자리플랫폼의 전문가를 통해 면접요령 등 취업 컨설팅을 받은 뒤 희망버스에 올라 ㈜파루, ㈜파루인쇄전자 기업을 찾아가 면접에 임했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를 앞으로 7차례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무역수지 3억4700만 달러 흑자

4월 동향 반도체·화공품·석유제품 수출 견인…전년비 6.1%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3억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2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6.1% 증가한 48억1200만 달러, 수입은 32.8% 증가한 44억6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47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 4월말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9.7% 증가, 수입은 41.4% 증가하는 등 33억39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견인했고, 전남은 화공품과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한 15억8300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8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3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69.9%)와 기계류(5.9%), 타이어(29.3%)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25.4%)와 가전제품(1.3%)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6.6% 증가한 32억2900만 달러의 수출을 보였고, 수입은 34.4% 증가한 36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억86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냈다.

화공품(9.0%)과 석유제품(86.4%), 기계류(28.7%)의 수출은 늘었으나, 철강제품(47.6%)과 수송장비(99.2%)가 감소세를 보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이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 강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제공〉

해양에너지 창립 40주년 기념 열려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는 지난 11일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 강당에서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해양에너지의 주주사인 맥쿼리자산운용과 지난해 10월 출범한 ESG 위원회, 협력업체 대표자 및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신입사원 입사식, 장기근속사원·조직가치실천 우수자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1982년 ㈜해양도시가스 법인을 설립한 뒤 광주를 시작으로 화순에서 전국 최초 군 단위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이달 현재 전남 8개 시·군으로 공급권역을 확대했다. 광주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형순 대표는 "안전한 일터와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지역사회 미래를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맥쿼리인프라는 ㈜해양에너지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저탄소연료인 천연가스의 수요증대를 회사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내걸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포트란e' 유럽 탄소중립 A등급 개발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상용차량(LCV)용 제품 '포트란e'〈사진〉에 유럽 라벨링 트리플(Triple) A 등급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트란e'는 유럽 기후와 도로 조건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타이어로, 연비에 해당되는 구름저항(RR, Rolling Resistance), 젖은 노면 성능(Wet Grip), 소음성능(Noise) 모두 최상 등급인 'A'를 달성했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핏포55(Fit for 55) 법안 추진을 발효했는데, 핏포55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이상 감축하는 기후법을 달성하기 위한 EU의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향후 탄소배출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유럽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 기존 포트란(PorTran) KC53 대비 28%의 구름저항 감소로 100㎞ 주행시 0.4ℓ 연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 저감했다. 또 제동 성능에 특화된 새로운 컴파운드 개발을 통해 마른 노면에서 5%, 젖은 노면 16%의 제동력을 향상시켰으며, 저소음 배열 패턴 설계로 소음 성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핏포55 도입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의 대체가 급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며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필요한 친환경 기술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트란e'는 상용차 전용의 스테디 셀링 제품인 포트란 KC53의 안정된 품질 성능을 기반으로 구름저항, 젖은 노면 성능, 소음 성능에 최적화한 핵심 기술들을 접목시켜 내년 하반기 대표 1규격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0.08 (-42.19)
↓	코스닥	833.66 (-32.68)
↓	금리 (국고채 3년)	2.900 (-0.028)
↑	환율 (USD)	1288.60 (+13.30)